

## 6장

### 인문학과 문헌 자료의 이용

모든 종류의 연구에서 문헌 자료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찾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양한 문헌을 섭렵하여 읽고 정리해야 한다. 물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 외에도 경험 조사 자료나 실험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인문학의 경우에는 연구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문헌 자료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문헌 자료를 이용하는 일은 모든 종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인문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를 찾아 읽고 정리하는 특별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문학이 가진 특별한 성격을 살펴본 후, 인문학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인 문헌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익히는 것은 인문학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 1. 인문학의 성격

인문학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연구 대상은 무엇인가? 인간이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과학 역시도 인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예컨대 철학의 고전적인 주제인 “합리성”은 사회과학의 분과인 경제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인문학이 꼭 인간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철학이 다루는 대상이 주로 인간의 사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과 같은 철학 분과는 원래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세계의 존재 방식에 대해 고찰하던 학문 분야였으며, 현재도 ‘물리학의 철학’이나 ‘인과’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 분야들은 인간의 사고 방식만큼이나 세계의 존재 방식 자체를 다루고 있다. 역사의 경우도 그 연구 대상이 꼭 사람일 필요가 없다.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나 예술 작품들이 될 수도 있고, 철학 이론이나 과학 이론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물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술사, 철학사, 과학사, 기술사와 같은 영역도 역사의 한 분야로 연구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세계의 존재 방식은 철학이 아닌 자연과학에서 주로 다루고, 생명의 역사는 역사학이 아닌 생물학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볼 때, 인문학이 주로 인간에 대해 다룬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인문학이 인간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인문학의 성격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인문학과 과학이 서로의 독특한 연구 방법에 의해 구분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즉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연구되지만, 인문학은 인문학적 방법에 의해 연구된다는 것이다. 이

는 인간 또는 인간 사회라는 동일한 연구 대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구분지어 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처럼 보인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합리성’에 대해 경험적,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반면, 철학자들은 그러한 경험적 연구를 그다지 선호하는 것 같지 않으며, 보통은 그러한 경험적 조사나 실험을 통해 결론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sup>1)</sup> 또한 역사학은 과거의 특정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밝히는 분야로, 보통 문헌 자료로 이루어진 방대한 사료를 증거로 개연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연구 방법이다. 역사는 완전히 똑같이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경험적 조사나 실험은 과거를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만 이용될 뿐이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대한 추론을 하거나 역사 일반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 한다. 반면 사회과학자들은 사료뿐 아니라 현재 수행한 경험적 조사들을 근거로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라는 분야를 하나로 묶어줄 어떤 하나의 ‘인문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인문학의 대표적인 세 가지 분야인 문학, 역사학, 철학은 매우 판이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은 사료를 증거 삼아 과거의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험적 자료로부터 인간 사회의 객관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사회과학과 닮은 점이 있지만,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을 그다지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과학과 구별된다. 반대로 철학은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닮아 있지만, 그것이 다루는 문제의 해결에 경험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리 말하자면, 경험적 자료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즉 주로 사변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과학과 구별된다. 즉 인문학에 속한 역사학과 철학은 경험과학과 서로 다른 면을 닮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인 기원을 가진다. 원래 서양에서 역사는 인간을 다루든 자연을 다루든 상관없이 특정한 개별 사실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가리켰다. 그래서 역사에는 인간사뿐 아니라 자연사, 실험사 등도 가능했다. 그 용어의 흔적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과 같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철학 역시도 인간과 자연이냐에 상관없이 참된 이론을 추구하는 학문을 가리켰다. 그래서 철학에는 인식론, 윤리학뿐 아니라 도덕 철학, 자연 철학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학문 분야들에서 16, 17세기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며 발전한 자연사, 실험사, 자연 철학, 실험 철학이 별도의 분야로 독립한 것이 현재의 자연과학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탐구하는 분야들이 사회과학이 되었다. 이로써 역사학은 과거 역사가 다루던 영역 중에서 독립되지 못한 영역인 인간사만을 다루는 분야로 재정의 되었고, 철학은 과거의 철학 영역 중에서 경험적/실험적 방법으로는 결론내기 어려운 (즉 과학으로 독립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사변적인 학문 분야로 남게 되었다.

결국 인문학이란 이질적인 성격의 학문 분야들이 느슨하게 묶여있는 집합으로, 하나의 연구 대상이나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문학을 규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문학을 문학(과 예술), 역사학, 철학 등의 모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의’ 인문학을 묶어주는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말해볼 수 있다. 그것은 인문학 연구가 텍스트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인문학자들은 분야에 상관없이 글을 읽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전문가이다. 역사학자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거의 사료를 정확히 읽어내는 전문가이며, 철학자들은 추상적이거나 매우 복잡한 논리로 구성된 논증을 분석하고 허점을 찾아내는 전문가이며, 문학가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상태나 분위기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표현

1) 그렇다고 철학자들이 경험적 증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험적 증거는 철학자들에게도 여타의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증거처럼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그들이 다루는 문제의 특성상 그 증거는 그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해줄기에 불충분하고, 그들은 그 불충분한 부분을 채워줄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했다.

## 철학이 다루는 문제

철학이 주로 경험적인 증거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면, 그러한 문제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 예를 들어, 철학의 한 분과인 윤리학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그러한 행동을 올바르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험적 자료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답이 나올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알아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다른 종류의 논증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이 철학의 대표적인 한 영역인 윤리학을 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과학이란 무엇이며 지식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과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탐구한다면 과학철학이 되고, 역사란 무엇이며 역사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지 탐구한다면 역사철학이 되며, 말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면 언어철학이 된다. 또한 기술이란 무엇인지 탐구하면 기술철학이 되고, 계산이란 무엇이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탐구하면 그것은 컴퓨터과학의 철학이 된다. 이렇게 언급된 ‘올바름’, ‘과학’, ‘역사’, ‘언어’, ‘기술’, ‘컴퓨터’ 등은 인간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학문적인 활동에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해온 용어들이지만, 그것들을 엄격하게 정의하거나, 그 구획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혹은 그 기준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러한 탐구 문제들은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다. 이처럼 익숙한 대상을 다룸에도 그에 대해 경험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철학의 문제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도처에 산재해 있다.

하는 전문가이다.

인문학의 연구 대상 역시도 문헌 속에 숨어 있다. 예컨대, 역사학의 경우, 연구 대상인 과거의 모습은 ‘사료’라고 하는 문헌 자료 속에 숨어 있고, 철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수많은 추상적인 문제들은 옛 학자들이 자신의 논증을 펼친 글 속에 담겨 있으며, 문학 비평의 연구 대상은 문학 작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학 연구는 주로 문헌 자료에 대한 방대하고 심층적인 독해를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제 인문학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자 다른 연구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자 문헌자료를 찾고 읽고 정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자.

## 2. 문헌자료의 종류

문헌자료는 보통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되며, 때로는 3차 자료를 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1차 자료는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의 근원이 되는 자료들이며, 2차 자료는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전문적인 연구 결과물이다. 그리고 3차 자료는 2차 자료들을 일반 독자용으로 종합 정리한 문헌자료이다. 이러한 구분은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나의 연구에서는 2차 자료나 3차 자료였던 것이 다른 사람의 연구에서는 1차 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역사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분이 엄격한 반면, 철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그러한 구분을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2.1 1차 자료

1차 자료는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의 근원(source)이 되는 문헌 자료들로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연구 대상에 대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원자료(raw data)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주로 당사자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주관적 견해가 직접 담긴 자료가 1차 자료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를 현재 입수 가능한 다른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 역시 1차 자료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어떤 배경에서 제안된 것인지를 연구할 경우, 데카르트가 집필한 책과 논문과 일기,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당대의 다양한 문헌들이 1차 자료에 포함되며, 심지어는 문헌이 아닌 사물이나 그림 등도 1차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연구의 1차 자료들을 보통 '사료'라고도 부른다. 만약 당신이 황순원의 작품 「소나기」가 어떤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황순원의 작품 「소나기」를 비롯해, 황순원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다른 글들과 다른 작품들, 그리고 당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신문 기사들이 1차 자료가 될 수 있다. 역사학과 문학과 같은 분야의 연구에서, 이러한 1차 자료들은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된다.

최근 설립된 기업이나 기관의 역사를 연구하는 경우, 이미 작성된 문헌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서 그것을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인터뷰 녹취록을 보관해둘 경우, 그것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1차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녹취록이 유실될 경우, 그 자료에 근거한 그의 논문이나 저서는 후대에 1차 자료와 유사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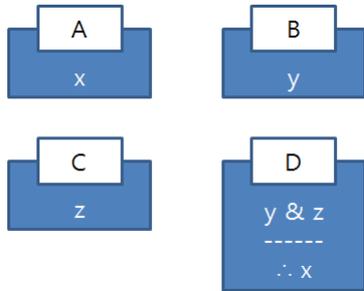
## 2.2 2차 자료

연구자는 연구를 하는 동안 비슷한 주제로 연구한 다른 사람들의 전문적인 연구 결과물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이를 2차 자료라고 부른다. 만약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어떤 배경에서 제안된 것인지를 연구하는 경우, 당신은 앞에서 언급한 1차 자료들뿐 아니라, 이미 데카르트의 사상과 그 배경에 대해 연구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 책을 읽어야 한다. 당신은 이러한 2차 자료를 섭렵하면서, 연구 대상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는 동시에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에 대해 의심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주장을 고안해야 한다.

일반 독자용으로 2차 자료들을 종합 정리한 자료를 3차 자료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교과서나 백과사전의 항목들, 대중잡지의 기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자료는 연구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연구를 시작하는 초보 연구자들에게 그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유용하다. 이러한 3차 자료는 넓은 의미에서는 2차 자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차 자료의 이용 목적은 다양하지만,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림 6.1). 예컨대  $x$ 라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y, z, w$ 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보자. 이때 2차 자료에 해당하는 연구 논문들 중에서  $x$ 라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 A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일반인이라면 전문가의 의견이 자신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연구자는 다른 전문가들과 대등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의 권위에 호소하는 방법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y$ 를 주장하는 논문 B와  $z$ 를 주장하는 논문 C가 존재한다면, 나는  $x$ 를 뒷받침하는 데 그 논문들 B와 C를 언급하며  $y$ 와  $z$ 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논문 D에서  $x$ 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미  $y$ 와  $z$ 를 들고 있다면, 나는 그 논문을 인용해서  $y$ 와  $z$ 를 근거로  $x$ 를 주장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논문은 결국 논문 D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D와 똑같은 내 논문은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sup>3)</sup> 여전히 내가 x를 주장하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싶다면, 논문 D에서 근거로 든 y와 z 외에 다른 근거 w를 제시해야 한다. 역사학이나 문학 분야의 연구자라면 그 w를 보통 1차 문헌에서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철학 분야의 연구자는 그 w를 또 다른 2차 문헌 E에서 가지고 오기도 한다.



**그림 6.1** x를 주장하기 위해 논문 A를 언급하는 것은 근거 제시로서 적절하지 않다. 다만 B와 C를 인용하면서 y와 z를 근거로 x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논문 D가 존재한다면, 그 논문을 인용해 y와 z를 근거로 x를 주장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가 없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분을 중시하는 역사학이나 문학 분야에서는, 학위 논문을 쓸 때 참고 문헌 목록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1차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채 2차 자료들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만 담은 논문을 특별히 ‘비평 논문’ 또는 ‘리뷰 논문’이라고도 부르며, 역사 분야 학술지에서는 ‘연구 논문’ 섹션과 ‘비평 논문’ 섹션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차 자료와 1차 자료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당신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평가하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이론을 제안하는 연구를 한다고 해보자. 이러한 연구에서는, 심신이원론의 주장을 담은 데카르트의 글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에 대해 논한 철학자들의 글을 비롯해 심리학자, 뇌과학자 및 컴퓨터과학자들의 최신 연구 논문들까지도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참고하는 다양한 문헌에 등장한 과거의 여러 철학적 이론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이용할 것이고, 또한 여러 경험적 자료를 그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소 추상적인 논증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 그래서 철학 분야의 학술지에서는 ‘연구 논문’과 ‘비평 논문’을 좀처럼 구분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현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었는지에 대해 역사적 연구를 할 경우,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분법은 또다시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데카르트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서 2차 자료나 3차 자료로 분류될 법한 자료들이 연구의 중요한 1차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에서 출판된 철학 논문들, 철학 교과서, 철학 교양서, 신문기사 등이 1차 자료가 된다.

### 3. 자료의 검색과 선별

#### 3.1 자료의 검색 : 도서관과 인터넷

3) 만약 출처까지 밝히지 않은 채 D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면 내 논문은 표절이 될 것이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면, 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는 도서관이나 인터넷 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 질문이 처음 떠오른 시점의 연구자들은 연구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그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검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자료의 검색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 접속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접속처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도서관 웹사이트이다. 거의 모든 도서관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제목, 저자, 주제어 등을 검색창에 적어 넣고 검색함으로써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주제나 저자와 관련된 자료가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이 속한 대학 도서관은 세상의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 경우에도 도서관 웹사이트는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이나 온라인 자료 제공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과 상호대차나 원문복사 서비스 협약을 맺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은 다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당신이 다니는 대학의 도서관을 경유하여 대출을 받거나 일부분에 한해 복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들을 위해 여러 온라인 자료 제공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문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구입해 놓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Philosophy of Science*라는 해외 학술지의 논문들은 JSTOR라는 데이터베이스 제공 웹사이트에서 그 목록뿐 아니라 원문까지 제공되지만, 회원이 아닌 경우 목록만 검색될 뿐 pdf 형식의 원문은 다운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대학 도서관이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그 학술지의 전자저널 접근권을 구입해놓은 상태라면, 당신은 학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 논문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 외부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라도, 당신은 도서관 웹사이트를 경유함으로써 그 논문들을 다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문 검색에 유용한 웹사이트는 박스를 참고하라.

자료를 검색할 때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최초의 자료 검색은 며칠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한 자료 목록은 읽고 연구하면서 차차 완성될 것이다. 둘째,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검색이 되더라도 자료를 입수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을 해두어야 시간 내에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셋째, 여러분의 대학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접근 권한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해외학술지 논문의 경우 학내에서 검색했음에도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는 학교 도서관이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자료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면, 포기하기보다는 원문복사 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자료를 입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많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웹사이트의 제작 기관이나 해당 자료의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웹사이트는 학술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이 인터넷 검색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첫째, 사서나 해당 주제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인터넷 검색으로는 잘 찾아내기 어려운,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알려줄 수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목이나 짧은 요약만 확인하고서 관련 있어 보이는 자료들을 잔뜩 모으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당신의 교수는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할지, 중요한 자료 중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수가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연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제별로 항목이 엮어진 연구입문서나

## 자료 검색에 유용한 웹사이트

### 국내외 단행본 검색

-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iss.kr> 전국 대학도서관 및 일본대학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내 및 일본 대학에 원문복사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구할 수 있다.
- **OCLC Worldcat** <http://newfirstsearch.oclc.org> 전 세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외 문헌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외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구할 수 있다.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검색

-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iss.kr> 전국 대학도서관 및 일본대학 도서관의 소장 학술지 검색이 가능하며, 원문복사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 **NDSL(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ndsl.kr> 협력기관 도서관의 소장하고 있는 논문명 및 학술지명 검색이 가능하며, 원문복사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학술지 논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국내 학술지 논문 검색 및 원문 다운로드

- **DBpia(누리미디어)** <http://www.dbpia.co.kr/> 총 460여 종의 학술지 검색 및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KISS(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총 3,500여 종의 국내 학술지 검색 및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교보문고 스킨라** <http://scholar.dkyobobook.co.kr/> 국내 230여 개의 학회에서 발행되는 400여 종의 학술지 검색 및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국외 학술지 논문 검색 및 원문 다운로드

- **Academic Search Complete(ASC)** <http://search.ebscohost.com> 전 주제분야의 학술지 약 9,300여 종에 수록된 논문 검색 및 학술지 5,800여 종에 대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Web of Science** <http://www.isiknowledge.com/> ISI사에서 발행하는 전 주제 8,500여 종의 학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Science Citation Index,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의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논문의 서지정보(서명, 저자, 수록 학술지명, 인용사항 등)를 검색할 수 있다.
- **ScienceDirect** <http://www.sciencedirect.com/> Elsevier에서 발행하는 1,900여 종의 학술지 검색 및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 **SCOPUS** <http://www.scopus.com> Elsevier에서 발행하는 과학, 기술, 생명과학/의학, 사회과학 분야의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이다. 논문의 서지정보(서명, 저자, 수록 학술지명, 인용사항 등)를 검색할 수 있다.
- **JSTOR** <http://www.jstor.org/>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전 주제 960여종의 학술지 검색 및 원문을 제공 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출처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ResearchSupport?id=researchguide&file=GeneralGuide>)

위의 자료 제공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초록(abstract)이라 불리는 논문의 요약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훑어봄으로써 여러분은 필요한 자료를 골라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 여러분의 대학 도서관이 접근 권한을 구입해 두었다면, 여러분은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내의 컴퓨터로 접속하거나 도서관 웹사이트를 경유하여 접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Google Scholar**(<http://scholar.google.com>)라는 학술 검색 엔진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자료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자에게 유관한 자료를 매우 잘 찾아주어 연결해준다.

백과사전도 유용하다. 관련 주제 항목을 읽어봄으로써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그 항목의 참고문헌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헌자료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식 참고문헌들은 *Blackwell Guide to Logic*, *Companion to the History of Britain*,

*A Handbook of Economic Anthropology,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Encyclopedia of Philosophy* 등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http://plato.stanford.edu>) 등의 참고문헌은 방대한 주제 항목과 신뢰성 있는 저자들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처음 철학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도서관에서 당신이 찾은 도서의 주변 서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목으로는 잘 검색되지 않는 보물 같은 자료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도서관 서가는 기본적으로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 3.2 자료의 선별 : 관련성과 신뢰성

자료를 검색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검색으로 찾아낸 모든 자료를 꼼꼼히 읽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 필요한 것이 훑어 읽기이다.

학술지의 논문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논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록(abstract)’이라 불리는 부분이다. 웹상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보통 한 문단 정도로 이루어진 초록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초록을 훑어봄으로써 그 자료가 자신의 연구와 정말 관련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원문을 볼 수 있다면 논문의 목차와 참고문헌 목록을 확인하거나, 서론과 결론을 읽어보는 것도 자료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경우에도 독자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담긴 부분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은 목차가 될 것이고, 학술서의 경우에는 책 뒤에 있는 색인(index)이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 색인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주제어와 관련된 내용이 몇 쪽에 실려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색인이 알려주는 곳을 먼저 찾아봄으로써 연구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자료에 담겨 있는지 빨리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질만한 챕터가 있다면, 논문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그 챕터의 서론과 결론 부분을 훑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체 책의 서론과 결론도 읽어보면 된다.

자료가 당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연구에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의 신뢰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최종적인 신뢰성 평가는 자료를 꼼꼼히 읽고 자료에서 언급하는 출처들을 따라가면서 그 정확성을 확인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모든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꼼꼼히 읽지 않고서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째,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저자가 불분명한 자료는 걸러낸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이 여기에 속한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위키피디아』(<http://wikipedia.org>)도 연구에 사용하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키피디아는 분명 연구자에게 좋은 길잡이를 제공하는 사전이지만, 언제라도 항목의 내용에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삽입될 위험이 있다. 물론 위키피디아 항목의 잘못된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자들이 의해 자발적으로 신고되고 수정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열어본 위키피디아 항목에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있을 수가 없다. 학술적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저자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내용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걸러낸다. 대부분의 자료에는 저자가 직접 보고 생각한 것 외에도 저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내용도 담겨 있기 마련이다. 신중한 저자는 독자가 의심할 것을 대비해, 자신이 어디서 그 내용을 보고 옮겨 적은 것인지 주석에 출처를 달아 놓는다. 의심이 가는 독자는 원한다면 그 주석에 나온 출처를 통해 그 내용이 확실한지 확인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이미 표준이 된 관행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찾은 자료에 당신

이 들어본 적이 없는 진기한 내용이 적혀 있음에도 그 내용의 출처가 적혀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한 웹페이지의 저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들을 단순히 짜깁기하여 글을 게시해놓은 경우가 많다. 그러한 웹페이지에서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을 때 출처가 적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간단하게 조언하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자료에 주석으로 참고문헌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료는 걸러내라.

셋째, 브랜드 네임을 이용한다. 그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저자가 집필한 책이나 그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일단 믿어봐도 좋다. 여러 논문들이 엮여있는 책의 경우에는 편집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의 자료의 경우에는 믿을 만한 기관에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자료이긴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 및 정보 연구센터에서 제작되고 문리대에서 후원을 받고 있으며, 명성 있는 철학자가 전체적인 편집을 담당하고 있고, 각 항목들은 그 주제의 권위자에 의해 집필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그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다섯째, 동료 학자들의 심사(peer review)를 받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심사를 통과한 논문들만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학술지가 비슷한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그 분야에서 가장 믿을만한 학술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분야의 일류 학술지에 어떤 학술지들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학술지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경쟁 속에서 투고된 여러 논문들 중에서 그 분야의 동료 학자들의 깐깐한 심사를 통해 선별된 질 좋은 논문들만이 실려 있을 것이다. 반면 명성이 낮은 학술지는 투고되는 논문수가 적어 낮은 질의 논문도 받아줄 위험이 있다. 이러한 브랜드 네임을 이용한 선별은 완벽하지 않으며, 아주 좋은 자료를 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검색된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 이러한 선별법은 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자료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를 이용한다. 전문 학술지에는 최근에 출판된 학술서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리뷰가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그 자료가 어느 정도의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인지 미리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리뷰의 내용에 상관없이 리뷰의 개수가 많다면 그 자료는 그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마찬가지로 그 자료가 여러 다른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면 그 자료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인용 횟수는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http://google.com/scholar))나 여러 학술논문 제공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다.

위의 기준을 통해 선별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내용 모두가 옳다는 보장은 없다. 위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여러분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일단 신뢰하며 그것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지만, 여러분은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과 근거, 논증 방식이나 사실 보고 등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스스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순한 독서를 위해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자료를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 결과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은 연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다른 연구 결과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전형적인 형태의 연구이다.

#### 4. 읽기의 다양한 방식

## 4.1 훑어 읽기

자료의 검색에서 얘기했다시피, 연구자들은 검색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수많은 자료 중에서 관련이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를 버리고, 꼭 필요한 자료부터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별 및 우선순위 배정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훑어 읽기이다. 이 때에는 목차나 색인을 통해 저자의 핵심 주장이 담겨 있는 부분이나 당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빠르게 읽도록 한다.

## 4.2 자료에서 관련 지식 습득하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로부터 이론적 지식과 그 적용 사례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사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연구 대상과 관련된 시기나 지역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인 수많은 2차 자료를 섭렵해야 한다. 2차 자료의 섭렵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당대의 중요한 사료를 읽는다고 해도 사료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간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세기 모스의 전신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 대해 연구하는 경우, 그 시기 미국에서 특허법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제정되어 있었는지, 전신과 관련된 기술과 기업들의 발전 상황이 어떠했는지 미리 알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당시 모스의 재판 기록을 열심히 보더라도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은 19세기 미국의 기업사나 법률사를 다룬 2차 자료나 3차 자료들을 섭렵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독서를 통해 현재 해당 분야에서 해결된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각각 무엇이며, 해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다. 어쩌면 염두에 두고 있던 연구 문제가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연구자의 해결책이 만족스러운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운이 안 좋으면 자신의 연구 문제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연구 문제는 자료를 보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지만, 그 문제는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때로는 추가적인 새로운 문제가 발굴될 수도 있는 것이다.

## 4.3 자료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 찾기

우리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연구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연구 문제와 비슷하거나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시도 하나하나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자라면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측정 방법이나 실험 설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하거나 배제해야 할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연구자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검출하는 데 실패했던 현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보자. 그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자들은 깨닫지 못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현상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연구자가 발견한 현상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면, 그 연구자가 사용한 잡음 제거 방법을 사용해볼 수 있다.

인문학 연구자 역시도 다른 연구자들이 채택한 관점이나 논증 방법, 증거의 종류 등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이 연구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동차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전거나 전기의 역사를 다룬 연구 결과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전

거의 역사를 다룬 연구 중에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논문들이 있다. “처음 자전거가 등장했을 때에는 앞바퀴가 큰 자전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왜 오늘날에는 그러한 자전거를 볼 수 없을까?”, “초창기에 큰 앞바퀴 자전거와 작은 앞바퀴 자전거를 구매한 집단은 각각 어떤 집단이었으며 구매의 이유는 각각 무엇이었을까?”, “작은 앞바퀴 자전거의 단점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과 그에 대답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역사를 다루기 위한 것들이지만, 당신은 그 질문들을 살짝 변형하여 자동차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가 등장한 초창기의 여러 종류의 자동차 중 왜 하필 현재의 휘발유 자동차만 남게 되었을까?”, “초창기 전기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를 구매한 집단은 각각 어떤 집단이었을까?”, “휘발유 자동차의 단점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을까?”

한편 전기의 역사를 다룬 연구결과물 중에는, “백열등의 도입은 백열등이란 상품 하나의 성공이 아닌 발전소와 배전망 등을 포함한 전력 공급 시스템 전체의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접한 후 당신은 자동차의 성공적인 도입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뿐 아니라 도로망이나 교통신호체계, 주유 시설의 보급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당신은 그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한 방식도 비슷하게 따라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문제의 좋은 해결책이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문제에 완벽하게 들어맞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 때에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시도 자체가 새로운 발견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고, 어떤 조건에서 그 해결책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새롭게 밝혀냄으로써 그 분야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문제 해결책을 도장 찍어내듯이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수 있다.

#### 4.4 자료에서 문제 찾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연구를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로부터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그것의 문제점과 한계를 찾고 그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2차 자료를 읽으면서 항상 저자의 주장과 근거를 의심해야 한다.

우선 저자가 문제를 정의해놓은 경우에는 그의 해결책이 만족스러운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저자가 “과학적 설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던진 후, “현상을 자연법칙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할 경우 과학적 설명이다”라는 답을 내놓았다고 해보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쉬운 비판적 검토는 반례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혹시 자연법칙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과학적으로 보이는 설명이 있는지, 또는 연역적으로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과학적으로 보이는 설명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한 비판지점을 찾았을 경우, 여러분은 그 저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때로는 그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을 저자가 미리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라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파고들 필요가 있다. 저자의 주장은 동의할 만하지만 그 근거가 부실해 보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여러분은 더 나은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자의 주장이 그의 적용 사례를 넘어서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수도 있다.

저자의 주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지 의심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그 주장이 의심되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가 정말 사실인지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이 믿고 있는 사실과 불일치하는 증거가 제시되었을 경우, 자료에 언급된 출처를 통해 진짜인지 확인해보거나, 제시된 증거의 사실성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는지 검색해보므로써 그 의심을 근거 있는 의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역사학에서는 새로이 발굴한 자료에 의해 과거에 사실로 여겨지던 증거가 거짓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로, 제시한 증거는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무리하게 강한 주장을 한 것 같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된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설이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그 의심을 합리적 의심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안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는다면 하나의 완전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주장이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수반하게 될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여러분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규모의 문제인지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저자의 주장이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이 무척 많다면, 여러분은 매우 중대하고 큰 문제를 건드리게 된 것이다. 물론 그런 문제는 초보 연구자가 다루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 바꿔야 할 생각들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료에 대한 비판과 자료에 대한 이해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다. 자료를 무작정 비판하기 위해서 달려들면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선부른 비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장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자의 주장을 그의 입장에서 최대한 관용적으로 이해해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주장에 의심이 가는 자료일수록 더 여러 번 꼼꼼히 읽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판 정신은 이해한 뒤로 미뤄도 좋다. 이해하기 전에 비판하는 것은 금물이다.

#### 4.5 자료에서 내 주장의 증거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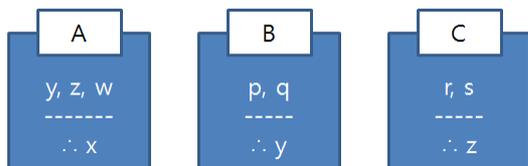
자연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험이나 관찰 자료를 제시한다. 사회과학자들 역시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조사 자료나 인터뷰 자료를 제시한다. 역사학자들 역시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견해가 담겨 있거나 그에 가까운 보고가 담긴 사료를 제시한다. 이렇게 모든 연구에서 증거 역할을 하는 자료는 1차 자료에 해당한다.

반면 2차 자료에 담긴 저자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참고의 대상일 뿐이다. 2차 자료의 저자가 나와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해서 내 주장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2차 자료에서 인용한 것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2차 자료에서 인용한 원자료를 찾아 다시 읽고서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1차 자료에서만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x$ 를 주장하는 데  $y, z, w$ 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y$ 는 다시  $p, q$ 에 의해 뒷받침되고,  $z$ 는  $r, s$ 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해보자. 이미 누군가가  $p, q$ 를 근거로  $y$ 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또 다른 누군가가  $r, s$ 를 근거로  $z$ 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다면, 나는  $x$ 를 주장할 때  $y$ 나  $z$ 를 주장하는 그 논문들의 견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x$ 를 주장하기 위해 언제나  $p, q, r, s$ 까지 다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철학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처럼 직접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역사학자처럼 사료를 직접 발굴하거나 조사하는 경

우도 드물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들은 역사적 연구 결과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자신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역사학자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원래 그 학자 개인의 견해이지만, 추상적인 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일종의 학문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그림 6.2).



**그림 6.2**  $x$ 가  $y, z, w$ 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고,  $y$ 와  $z$ 는 각각  $p, q$ 와  $r, s$ 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고 해보자.  $x$ 를 주장하고 싶은 때, 이미 B와 C의 논문이 존재한다면, 연구자는  $x$ 의 근거인  $y$ 와  $z$ 에 대해  $p, q, r, s$ 와 같은 추가적인 근거를 길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B와 C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그 논문들을 언급하고 출처만 밝히면 그만이다.

1차 자료가 증거 역할을 한다고 해서, 1차 자료에 담긴 내용이 모두 참이라는 것은 아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당시의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1차 자료가 되지만, 그 책에 담긴 모든 내용이 참이라고 믿는 연구자는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기업을 이끈 경영자와의 인터뷰 자료는 매우 중요한 1차 자료가 되겠지만, 그 경영자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과오를 감추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1차 자료에 해당하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1차 자료에 담긴 내용의 진위를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 이는 철학 연구자도 마찬가지이다. 철학 연구자에게는 역사적,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모두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듯이, 철학 연구자들도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때로 철학자들은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자신이 세운 원리에 기초하여 비판함으로써, 역사학자나 과학자로 하여금 그 문제를 다시 연구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 5. 읽은 자료의 기록

읽은 자료를 노트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지만 연구자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번 읽은 자료를 그때그때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면서 그 자료를 참고하거나 인용해야 할 순간에 훨씬 더 귀찮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트를 하면서 글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을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노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요약할 수 있게 되고, 비판적 평가를 해보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에 따라 여러 자료들에 대한 노트를 유기적으로 정리해둘 경우,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요약뿐 아니라,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관련 주제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이해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며, 이렇게 엮여 있는 노트들은 잘만 배치하면 그럴듯한 논문

의 초안이 완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트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렇다면 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과거에는 주로 카드에 노트를 작성했다. 공책에 비해 각 페이지의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모든 연구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노트를 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파일을 만들고, 나름의 분류법에 따라 그 파일들을 여러 폴더에 나누어 담아 두었을 것이다. 최신 소프트웨어에 밝은 연구자들은 최근에 나온 서지 관리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원문 pdf를 보며 파일에 밑줄도 긋고 옆에 노트도 작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방법에는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지만, 괜히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좋은지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했다면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지켜야 할 노트 기록의 두 가지 원칙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두어야 한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의 이름, 문헌의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를 기록해 두어야 하며, 학술지의 논문인 경우, 저자의 이름, 논문의 제목, 학술지의 이름, 권수와 호수, 출판 연도, 논문의 쪽수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다만 서지 정보를 기록하는 형식은 연구분야마다 다르며, 각각의 문헌마다 미세하게 다른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술지에서 사용하는 형식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 좋다. 아래는 역사와 철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지 정보 기입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 역사 분야

강명구, 김희준, 정운석 외, 『과학기술 글쓰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박기덕, 「필리핀의 체제 전환과 마르코스의 선택」, 『역사비평』 101 (2012), 124-146.

#### 철학 분야

강명구, 김희준, 정운석 외 (2008), 『과학기술 글쓰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은희 (2011), “흙의 정치철학과 보수주의”, 『철학』 109, 115-145.

둘째, 인용문과 자료의 요약과 본인의 견해를 엄격하게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한다. 노트에는 다양한 내용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지만, 주로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과 나중에 필요해 보이는 인용문과 본인의 비판적 평가를 기록해 두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료의 일부분을 별다른 표시 없이 요약해서 기록해둘 경우 나중에 원문과 헷갈릴 수 있다. 또한 자료에 담긴 내용을 요약한 것과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난 본인의 견해를 섞어서 기록해둘 경우,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글을 작성할 때 자료를 다시 봐야 하거나, 의도치 않게 표절을 범하게 될 수 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다른 학자의 견해와 내가 새롭게 제시한 견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자들은 그 분야에 새롭게 기여한 부분을 골라내어 칭찬하고, 만약 남의 기여를 본인의 것인 양 도용할 경우 학문적 절도로 비난한다. 따라서 자료에 담긴 내용과 본인의 견해를 섞어서 기록해둘 경우, 나중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치 본인의 생각처럼 사용하는 표절을 범하기 쉽다.

또한 학문의 세계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중요하다. 따라서 만약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대신 요약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증거 제시로 인정받기 어렵다. 게다가 요약은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길게 옮겨올 경우에는 표절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6.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문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자료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연구에 필요한 문헌자료를 찾아내어 선별해내고,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비판적으로 읽고, 바로바로 정리해 두는 것은 인문학 연구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골치 아픈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연구 문제들은 경험적 자료에 의해 쉽게 결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는 다음 장인 “인문학과 논증의 구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직접 인용과 풀어쓰기

논문을 작성할 때 언제 직접 인용하고 언제 풀어 요약해야 하는가? 둘은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인용 실수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인용은 보통 자료의 일부분을 주장의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또한 자료에 나온 견해를 달리 바꿀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직접 인용한다. 반면 요약은 자료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주로 자료 전체의 요점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다만 일부 문장에서 몇 개 단어만을 바꾸어 옮겨올 경우, 그것은 인용도 아니고 풀어쓰기도 아니며 표절이 된다. 즉 원문을 풀어쓴 요약은 원문의 내용을 본인의 방식대로 완전히 새롭게 작성한 문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보 연구자는 요약을 최대한 짧게 작성하는 훈련을 해야 하며, 자료를 보지 않고서 요약문을 작성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만약 자료의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주제문이 이미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장을 아예 인용해 두는 것이 좋다.